

평안가족복

특간 · 화목한 가정

2021년 9월 28일 제 38기

40년 원한을 한마디로 풀다

우리에게는 조상에서 물려준 두칸방 주택이 있었는데 큰아버지는 우리를 내쫓고 그들이 차지했다. 그때부터 우리 두집은 원한이 맺혀 40여년간 왕래하지 않았다. 몇년전 사촌동생은 집 구조를 바꾸려 했지만 집조가 우리손에 있었기에 사람을 보내 소통하려고 했다. 나는 내가 파룬궁수련생이기에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남동생보고 이젠 주택을 완전히 그들에게 넘겨주자고 설득했더니, 파룬궁수련을 금방 시작한 어머니도 흔쾌히 승낙하셨다. 내가 집조를 사촌동생 손에 넘겨줄때 그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우리 이 40년의 원한을 단 한마디로 풀게 될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나는 말했다. “대법이 우리 사이 이 원한을 풀도록 나를 개변시켰어요.”

상서 서로의 귀를 기울여
금실화목을 이루다

기적 대법은 포기할 위험에 처한
쌍둥이를 구하다

명백 옆집 일가 8명이
'삼퇴' 하다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풀려 행복의 비결



가정이란 본래 인생의 여행길에서 가장 따스한 바람막이여야 하지만 흔히 부부간의 화애롭지 못함으로서 가정은 평화와 따스함을 잃어버린다. 법를 석사 세후이루(謝蕙如)와 유

명한 비뇨외과 의사인 남편 위안룬상(袁倫祥)은 쌍쌍이 사업에서 성공했으나 아이교육 문제에서는 늘 의견이 맞지않아 싸울때가 많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강세였던 이 부부를 개변시켜 가정으로 하여금 평화를 되찾게하고 기쁨이 넘치게 변화시켰을까?

대만에서 생활하는 세 씨는 어려서부터 신체가 허약한데다 만성 천식까지 있었다. 따라서 네 명의 아들이 잇따라 태어나는 바람에 그녀를 끊임없이 지치게 했고 장기적인 수면 부족까지 겹쳐 그녀의 신체는 점점 안좋았다.



▲ 세후이루와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네 아들.

▶ 3면에 계속

서로의 귀를 기울여 금실화목을 이루다

생명은 바로 한수의 질탕스레 풍부한 노래와도 같다. 예린난귀(椰林南国)에서 양추난(杨秋南)과 장주셴(张竹娴)이 공동으로 작곡한 사랑의 멜로디는 웅장하면서도 유유히게 마침비가 그친후의 봄날의 태양 같았다. '진선인(真善忍)'은 우리의 활시위 소리를 조화롭게 했고, 서로 귀를 기울여 금실의 화목을 이루게 했다. 올때의 길을 회억하면서 그들은 파룬따파(法轮大法)를 수련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데 대해 행운스럽게 생각했다.

행운스럽게 대법을 얻어 원수로부터 배필이 되다

2002년 1월 대만에서 국소 행정주관으로 일하는 양추난은 처음으로 파룬따파 교사연습캠프에 참가해 파룬궁 창시인 리홍쯔(洪志先) 선생의 설법 영상을 보면서 상대방이 자신을 나쁘게 대할 때도 선하게 상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충동을 받았다.

그때 그는 바로 가정위기에 빠져있었다. 그는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사범원에서 석사공부를 해야했으며 게다가 가끔씩 어린 아들 딸도 돌보아야 했다.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그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고, 가정 모순도 날따라 커졌으며, 조강지처인 아내도 그가 전도를 위해 분투하려는 때에 오히려 그를 떠나려고 했다.

아내 장씨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녀로서 야근에다 밤늦은 퇴근은 일상이었다. 가정과 사업이 모두 바쁘다 보니 그는 남편이 도와주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간고한 시각에 부부는 다투거나 냉전으로 시



▲위그림: 양추난 행복한 일가 / 중간그림: 딸 차이메이는 전세계 중국 고전무용 아태구역 초보 콩쿠르 대회에 참가하다 / 밑그림: 아들 리홍은 유희를 그리고 있다.

간을 보내다보니 결국에는 두 사람 모두 문진의 단골이 돼버렸다. “대법이 저에게 ‘선타후아(先他后我)’를 가르쳤기에 저는 진심으로 가까운사람을 관심하게 되고, 또 명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따라서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양추난은 말했다. “담담하고 무관심하던 데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은 것처럼 고맙게 생각하고, 허심하게 안으로 찾고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저는 마침내 아내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고, 따라서 모순도 서서히 해결됐습니다.” 그때로부터 온가족은 대법

에 들어와 건강과 기쁨을 되찾았다. 아내 장 씨는 충심으로 그들을 혼인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사부님의 은덕에 몹시 감사했다.

전통교육이 자녀들에게 주는 혜택

추난부부는 한쌍의 아들 딸을 키웠다. 딸 차이메이(彩眉)가 5개월이 됐을 때 불시에 고열이나서 병원에 보내진후 뇨액회로 세균감염으로 인한“뇨도폐쇄부전(尿路闭锁不全)”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할 필요는 없지만 완치가 어렵기에 반드시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먹여야 한다고 말했다. 근 2년 사이에 본래 포동포동하고 귀엽던 아기는 항생제로 인한 식욕부진 부작용때문에 앙상하게 말랐다.

양추난은 법을 얻은 후 “득과 실(得与失)” “병과 업(病与业)”에 대해 깊은 인식이 있었기에, 부부는 주동적으로 약 복용을 멈추기로 결정

◀ 2면의 계속

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대법의 자비와 가지하에 아이는 의연히 건강하고 평안하게 성장했다.

추난일가는 해마다 세계 제 1류인 선원예술단의 연출을 관람한다. 또 정통 예술 문화의 영향을 받아 아이들도 예술에 취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선후로 대만 윈린(雲林)에 있는 고전예술교육으로 이름난 나오송(莒松) 예술고중에 입학했다. 아들 리훙은 미술, 딸 차이메이는 무용을 전공해 둘다 기술과 도덕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예술의 요람속에서 공부했다. 6년의 착실한 기본공 훈련을 거친후 두 아이는 품격이 단정할 뿐만 아니라 고전예술 기초도 든든히

다져왔다. 리훙은 또 싸탕런(新唐人) 전세계 인물 사생화 콩쿠르 대회에서 영예상을 수여받았다.

현재 이미 대학에 다니는 차이메이가 학교를 가는 도중에 행차를 피하려다가 빌딩앞에 주차한 골동차를 긁었다. 그는 정차해 살펴본후 빌딩안의 차주인을 찾아가 사과하며 배상할 것을 표명했다. 차를 수리부에 보낸후 주인은 자상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돈을 지불할 필요



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같은 세상에 당신처럼 성실한 젊은이는 많지 않으니깐요!”

양씨 일가는 모두 한마음으로 선을 향하기에 행복이 가득 넘친다. 양추난은 말했다. “혼돈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세인의 가치 표준마저 다 혼잡해졌습니다. 대법이 나더러 시비를 똑똑히 구분하고, 방향을 잃지 않으며, ‘진선인(真善忍)’으로 타인을 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내 장씨는 “대법은 어지러운 세상속의 한가닥 청류같아서 우리도 깨끗한 마음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이 나의 가정을 되돌려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 1면의 계속

게다가 아이들 교육문제에서 세 씨는 늘 남편과 쟁론이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그녀는 남편이 타인을 생각할줄 모른다고 원망했다. 이때문에 서로 마음이 불쾌해 지면서 가정분위기도 늘 좋지않은 상태에 휩싸였고 게다가 세 씨는 엄중한 천식까지 재발하면서 우울해졌다.

집도의사인 위안 씨도 평상시 공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주 컸다. 정신적 기락을 찾기위해 2012년 설날 부터 그는 <전법륜(轉法輪)>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흥분을 금치못해 아내보고 “바로 이거야!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거야! 이것이 나의 사부님이셔!”라고 연속 말하는 바람에 놀랍고 또 호기심이 생긴 아내 세 씨도 남편한테 좀 보여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어찌됐든 손을 떼지 않았다. 세 씨는 기다리다 못해 부

근에 있는 서점으로 달려가서 <전법륜(轉法輪)> 한 권을 청해와서 펼치자마자 그도 곧 깊이 빠져들었다. 다음 날, 세 씨는 천식을 치료하는 약을 모두 버렸고, 그후부터 천식은 다시 재발하지 않았다. 위안 씨는 “수련한지 3개월만에 목 질환, 경추 질환이 사라졌습니다. 내 본신이 의사였기에 만약 친히 겪은 일이 아니었다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감탄했다.

그들도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에따라 자신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타인을 생각하고 모순을 대하는태도가 180도로 크게 전변됐다. 세 씨는 말했다. “남편과 의견이 맞지 않을때면 저는 안으로 자신의 문제를 찾는 것을 배웠으며 다시는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진선인(真善忍)’의 법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었는데 활발하고 장난이

심한 어린 남자아이들이지만 말을 곧잘 들어 가정 분위기도 아주 유쾌하고 화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家和万事兴)”고 말한다. 위안 씨는 이점에서 남다른 체험이 있었다. 그는 감은하며 말했다. “의학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술을 잘한다면 당신은 연구를 썩 잘하지 못할 것이고, 만약 당신이 연구를 잘 한다면 당신은 아마 가정을 잘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모두를 잘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직장, 학술, 가정에서 모두 잘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련하는 것은 정법이기에 ‘진선인(真善忍)’의 용련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은 포기할 위험에 처한 쌍둥이를 구하다

2019년 여름, 나의 딸은 쌍둥이를 임신했다. 그러나 임신 22 주째 4D 초음파검사서 자궁경관 기능이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 자궁은 이미 U형으로 열렸고, 이는 유산할 가능성이 크기에 한달간 주원해 안태진료를 받았다.

나의 어머니와 두 언니는 모두 파룬궁을 수련한다. 그들은 나와 딸에게 성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眞善忍好)’를 넘하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 무사할거라고 알려주었다. 따라서 나는 딸이 안태기간 부터 ‘구자 진언’인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眞善忍好)’를 넘하기 시작했고 대법사부님께서 나의 딸과 태아를 보호해 주시기를 빌었다.



남편과 사위가 모두 포기할 즈음

2019년 10월 19일, 의사와 호사는 긴급하게 곧 출산을 앞둔 딸을 출산실로 밀고 들어갔다. 출산실로 들어갈 무렵 의사는 큰소리로 물었다. “태아는 27주 6일인데, 출산해서 호흡이 있고, 울음 소리가 들리면 가족은 구원을 동의합니까?” 사위는 “아이가 너무작고 제대로 발육하지 못했기에 앞으로 뇌가 마비될 위험이 있으니 나는 구원을 포기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사실 사위의 이런 생각도 도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산과 조산 사이에서 맴돌며 주수를 채우지 못했기에 반드시 어떠한 발육부전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다 사위의 가정은 빈곤하기에 경제와 정신상에서 부담이 너무 컸다. 그러나 곧 태어날 두 어린 생명을 생각하면 나는 이런 현실을 전혀 받아

드릴 수가 없었다.

첫째 외손군이 출생했고, 7분 후에 둘째도 순조롭게 출생했으며, 체중은 각각 1.8근 / 2.2근이었다. 이때 의사는 아이들이 출생할때 순조로웠고, 과정중에 산소부족 현상이 없었으며, 울음소리도 맑기에 구원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아기를 감쌀 이불을 챙겨오라고 했다. 나는 사위에게 차안에 챙겨놓은 이불을 가져오라고 3번이나 재촉했지만, 반시간이 지났어도 그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않고 두아이를 포기할 것을 견지했다. 나의 남편도 사위의 의견을 지지했다. 남편은 나에게 “아이 아빠마저 구원을 포기했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견지해? 나중에 아이가 문제 라도 생기면 당신이 감당할 수 있어? 원망 안 들을 자신이 있어? 당신에게 돈이 많아? 두 아이를 살리려면 100만은 몰라도 50_60만원은 있어야 될텐데 당신에게 돈

있어?”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눈앞에서 여전히 아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사위와 분노하는 남편을 보면서, 또 금방 이 세상에 알몸으로 태어나서 아무도 돌보지 않아 힘껏 울어대는 두 작은 생명을 생각하니 나는 이미 붕괴될 것만 같았다. 나는 울면서 큰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큰언니는 전화에서 큰소리로 우리에게 말했다. “그들은 아이야, 생명이라구, 두명의 살아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이 생존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 사람은 반드시 선량해야 해, 반드시 아이를 살려야 해!”

그러자 그들 둘은 마지못해 아이의 이불을 가져왔고 아이들도 보온실로 들어갔다.

파룬따파만이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돈

▶ 5면에 계속

◀ 4년의 계속

문제였다. 입원 첫날부터 한 아이가 벌써 1만 4천원을 써버렸다. 이때 큰언니는 1만 원을 나에게 주면서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 아이들을 살리는데 쓰라고 했다. 큰언니를 따라 온 집안에서 모두 나를 도와 돈을 모았기에 일단 급한 불은 껐다.

하루는 병원에서 둘째의 폐내감염이 아주 엄중한데다 폐출혈, 엄중한 빈혈, 대장 기능부전, 두 신장 분열 질환으로 수시로 생명위험이 있기에 보호자더러 포기할 사상준비를 하라고 통보했다. 큰언니는 나에게 “너는 성심성의껏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를 넘하고, 대법사부님께 두아이를 구원해 달라고 빌어, 파룬따파만이 명을 구할 수 있고, 오직 파룬따파만이 기적을 창조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나는 매일 아이가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문앞에서 열심히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를 넘해 작은 생명들이 평안하기만 바랐다.

기적이 나타났다. 첫째는 69일 후에 보온실에서 나와 보통병실로 옮겼고, 체중도 1.8근에서 4.2근으로 올랐다. 둘째는 78일 후 보온실에서 보통병실로 옮겨지며 체중도 2.2근에서 4근으로

“**그들은 아이야, 생명이라고, 두명의 살아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이 생존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 사람은 반드시 선량해야 해, 반드시 아이를 살려야 해!**”

올랐다.

퇴원할때 의사는 수시로 첫째의 산기(疝气)를 관찰할 것을 건의하면서 수술만이 완치한다고 했다. 둘째의 배변문제는 북경 전문병원에게서 치료하려 했지만 후에 무한 폐렴 전염병 때문에 떠나지 않았다. 큰언니는 나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사부님의 설법을 들려주라고 했다. 딸은 매일 사부님 설법을 틀어 아이들에게 들려줬다.

현재 두아이는 모두 다 나았고 건실하고 사랑스럽다. 아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포동포동한 손자를 보면서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한다.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대법사부님께서 아이의 명을 구해주신 은덕에 감사를 표했다. 이는 파룬따파(法輪大法)가 창조한 생명의 기적이다.

옆집 일가 8 명이 ‘삼퇴’하다



몇년전 나는 새 거처로 옮겼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기업 고급관리와 높은 직위를 가진 인원들이다. 우리 위층에는 한 중학교 고급교사가 살고 있었는데 매일 나를 감시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대법제자로서 우선 그들을 구하려면 그들에게 진상을 요해하게 해야 한다. 나는 주동적으로 그들과 접근하고, 주동적으로 인사를 나누었으며 그들을 관심했다. 그중 어떤이는 10여차례 인사를 해서야 겨우 콧방귀로 대꾸했다.

나를 감시하던 위층집에서 3번이나 물이새서 우리집으로 흘렀다. 첫번째는 그들의 실수로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서였는데 내가 그들에게 알리자 그들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두번째는 초밤에 윗집의 수도관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고, 우리집은 깊은 물에 잠겼다. 나는 얼른 윗집으로 올라가 정리하는 것을 도왔고, 남편도 함께 도왔다. 그러자 그들은 조금 감동했는지 감사를 표했다. 세번째는 윗집에서 물이 새면서 우리집 전기를 단락시켰다. 우리는 수리공을 불러 벽에 여러곳을 구멍을 뚫고서야 원인을 찾았다. 이번에 그들은 말했다. “이 이웃집은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른집이라면 적어도 몇천원은 배상하라고 할 것입니다.”

2015년 어느날, 내가 진상을 알리고 돌아올때 갑자기 윗집부부를 만났다. 나는 이번차례에 꼭 진상을 알리려고 생각했다. 나는

예의있게 여주인을 우리집에 데리고 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파룬궁을 감시하라는 업무를 받지 않았나요?” 그는 우물쭈물하며 아니라고 했다. 나는 “파룬궁은 불가 고덕대법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연공하거나 혹은 ‘구자 진언’을 넘해 병이 나왔어요. ‘천안문 분신자살’은 중공이 한손으로 파룬궁을 모함하기 위해 제작한 것인데 파룬궁을 박해하고,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을 박해하면 죄가 있어요. 중

▶ 6면에 계속

친히 '장자석 (藏字石)' 을 보고 완고한 남편은 탈당하다



▲ 풍경구 '장자석' 실경, 천연으로 형성된 '중국공산당 망'이란 여섯 개의 큰 글자가 큰바위 단면에 나타났다. 오른쪽 사진: 평탄현 장부향 풍경구 문표에 이 여섯 개의 큰 글자 '중국공산당망'이 찍혔다.

나의 남편은 중공 사당 당원이었고 '장자석'만 거론하면 친히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믿을 수 없다며 퇴당을 권해도 거절했다. 2013년, 우리는 일부러 "장자석"을 확인하려고 귀주로 향해 여행을 떠났다.

귀주에 도착한 후 여행단체를 따라 여행버스로 귀주 평탄현 장부향에 가는 일정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10여명이 이런일, 저런일로 빠지게 됐다. "이런 상황이면 당신 둘을 다른 단체로 배정하면 되는데.." 가이드는 이어서 말했다. "오늘은 정말로 특이한 날인가 봅니다. 위에서 우리더러 자가용으로 두분을 모시고 귀주 평탄현 장부향에 가 '장자석'을 보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두분은 운수가 정말로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눈으로 친히 '장자석'을 보게 됐다. 아주많은 전문가들의 감정을 받은 500년전에 갈라진 큰바위 단면에 놀랍게도 '중국공산당망 (中國共產黨亡)'이란 여섯 개의 큰 글자가 가지런히 배

열 되었는데 그 중에 '망 (亡)'자가 특별히 컸다. 나의 남편은 똑똑히 보고나서야 믿는다고 탄복했다.

그리고 '장자석'을 보러가는 길에 한그루 쓰러진 신나무가 있었는데 듣는 말에 의하면 신나무도 500년이 된다는 것이다. 풍경구를 건설하기 전날에 갈라지면서 쓰러졌다고 한다. 나무속에는 좀벌레가 가득 찼고, 나무 옆에 비문이 있었는데 "대가 아무리

굵고, 뿌리가 아무리 깊어도 부패하면 무너져야 한다."라는 한마디만 기억할 뿐이다. 공산당의 말로가 됐다는 것을 하늘이 세인에게 경고하는 듯 했다.

나의 남편은 친히 '장자석'을 보고나서 귀가한 후 즉시 나에게 퇴당신청을 부탁했다. 그의 심각한 심장병은 완쾌돼 특 하면 입원하던 남편은 그때로부터 다시는 병원에 간적이 없었다.

◀ 5면의 계속

공의 기편을 당해 그것을 따라 나쁜짓을 하면 안돼요."

그는 잇따라 말했다. "우리 남편은 폐암확진을 받고 금방 성병원에가 두번째 수술을 받고 돌아왔는데 의사는 3개월밖에 못산다고 했습니다. 내장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도 얼굴 삼차신경에 정창 (疔瘡) 이 생겼는데 죽지않아도 얼굴반쪽이 문드러진다고 말하면서 울기 시작했다. 나는 최대한 그를 위로하고는 그가 돌아가자 바로 진상자료를 들고 찾아가 그들에게 '삼퇴'를 도와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성심껏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 (眞善忍好)'를 넘하라고 알려 줬다.

2주후 그는 신나하며 우리집에 찾아와 그의 남편의 정신이 좋아졌으며, 공기밥 2그릇 식사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도 아프지 않다고 했다. 그는 그들은 매일 아침 4시에 기상해 영상에서 나오시는 사부님 법신상을 틀어놓고는 땅콩, 잣, 호두를 까서 사부님께 올린후 무릎을 굽혀 법신상 앞에서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 (眞善忍好)'를 100번씩 넘한다고 말했다.

또 한동안 지난후 그들은 길에서 나를 만났는데 너무 기뻐하며 한장의 병원 화형단을 나에게 넘겨주면서 말했다. "보세요, 이걸보세요, 5항 집표가 모두 정상입니다, 완전히 나왔어

요!" 나는 말했다. "진짜 당신들을 위해 기뻐요, 축하해요! 이는 대법의 기적이예요."

후에 나는 그의 집애가 일가족 8명에게 모두 '삼퇴'를 도와 주었고, 8명은 모두 강택민 기소동의서에 서명했다. 현재 그들은 매일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 (眞善忍好)'를 넘한다.

신은 사람의 마음만 본다. 진심으로 '삼퇴'를 하면 진명, 가명, 애명도 다 된다.' 돌파프 프로그램'으로 퇴당 사이트 바로 가기: tuidang.epochtimes.com